

휴머니즘 지키며 현실과 판타지 잘 접목해야 롱런

'슬기로운 의사생활2' 전 시즌 비해 화제성 떨어져 캐릭터·전개방식 등 현실과 괴리된 판타지 "엘리트 찬가, 지옥 같은 의료 현장과 대비" 쓴소리도

현실과 반 발짝 정도 떨어진 판타지는 대리만족을 주지만, 너무 동떨어지면 불편함을 낳는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신원호 PD-이우정 작가 특유의 따뜻한 휴머니즘을 시즌2에서도 이어가며 시청률이 1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 시즌에 비해 화제성은 확실히 떨어진 분위기다. '아로하' 같은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대박'도 아직은 없다.

얼핏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체가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시즌2에서도 이익준(조정석 분), 안정원(유연석), 김준완(정경호), 양석형(김대명), 채송화(전미도) 이십년지기 5인방 의사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일타에서 겪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주축을 이룬다.

전 시즌을 통해 각자의 서사가 쌓이고 러브라인이 발전하면서 다소 산만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인물들의 매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열거식으로 보여주는 느낌이라 시트콤 정도의 재미 이상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택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시즌2는 시즌1과 달리 매회 주제와 메시지를 담기보다 일상을 담은 시트콤 느낌이 강해졌다"며 "그렇다 보니 오늘 방송을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내용을 모르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인물들이 보고 싶어서 본다는 시트콤적 접근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즌1과 비교해 확연히 떨어

진 화제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질적인 문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캐릭터들과 이야기 전개 방식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이 현실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현실과 괴리된 판타지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특히 시즌1 때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 현장이 '지옥'과 같이 된 것도 더 괴리감을 안긴다. 이렇게 대부분의 의료진이 국민 방역을 위해 정신력으로 사투를 벌이는 사이 한편에서는 일부 양심 없는 병원들로 인해 대리 수술 문제가 불거지는 등 의료계는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율제병원과 의사들은 지나치게 평화롭다. 물론 의료진도 우리와 같이 일상이 있고 사랑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 보면 굳이 배경이 병원이어야 했고, 주인공들은 꼭 엘리트 의사여야 했느냐는 물음이 남는다. 최근 주인공들은 일, 사랑, 인생의 결정적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하지만 그 고민들이 의료진의 고뇌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약한 캐릭터 없는 작품이 신원호-이우정 사단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미화된 의사 5인방도 일부 시청자에게는 쓴소리의 대상이다. 실력이라면 실력, 인성이라면 인성, 외모면 외모, 심지어 노래 실력까지 다 갖춘 사람들뿐인 율제병원 세상은 주변을 돌아보고 나서 보면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2' 주인공 5인방.

최근 한 트위터 사용자가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수저와 재벌들이 성품과 인간미까지 갖췄다는 극단적 선민사상을 철저한 의학적 디테일에 얹어 실제 직군을 포장했다는 점에서 제작진의 취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일침을 가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것도 많은 시청자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도 "엘리트들의 부도덕함과 이기주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그 과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주인공들이 자선을 베풀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묘사하며 엘리트 찬가만 보여주니까 시청자들도 이제 '현타'(현실 자각 타임, 헛된 꿈에 빠져 있다가 실제 상황을 깨닫는 시간)가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즌제 제작에 성공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휴머니즘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현실과 판타지를 요령 있게 접목해 통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밴드 페퍼톤스 이장원 뮤지컬 배우 배다해와 백년기약



배다해와 이장원

밴드 페퍼톤스 이장원(40·오른쪽)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38)와 백년기약을 맺는다.

소속사 안테나는 이장원이 배다해와 올 늦가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장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저희 음악을 즐겨주고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배다해씨와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장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출신으로, 같은 학과 친구인 신재평과 2003년 페퍼톤스를 결성하고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배다해는 그룹 바닐라 루시 멤버로 2010년 데뷔했으며 뮤지컬 '모차르트!', '메리켄디'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추자현-이무생 주연 '당신이 잠든 사이' 크랭크인



추자현

이무생

추자현과 이무생이 주연하는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 나문희 주연의 '봄 쉼어랑'이 최근 촬영에 들어갔다고 제작사 TS나린시네마가 최근 전했다.

'당신이 잠든 사이'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던 덕희(추자현 분)와 준석(이무생) 부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의 기억 상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조성원 작가가 각본을 쓰고 '집속'의 장운현 감독이 연출한다.

이순성 감독의 데뷔작 '봄 쉼어랑'은 까다롭고 별난 할머니 금분(나문희)과 휴학생 대학생 지웅(최우성)이 동거를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2019년 창립한 영화 제작·기획사 TS나린시네마는 '선생 김봉두', '이장과 군수', '어린 의뢰인' 등을 연출한 장규성 감독이 총괄 감독을 맡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장편 상업영화 제작 공모전을 통해 10편의 작품을 선정했고, 이번 두 작품이 제일 먼저 촬영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먹는 재능으로 자영업자 도울 수 있어 좋아"

'돈줄내려 왔습니다' 제작발표회 개그우먼 이영자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시청자들은 환절기에 떨어진 입맛도 찾아 오셨으면 합니다."

'먹방'의 원조로 불리는 개그우먼 이영자(54·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숨만 늘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의의 푸드파이터'가 되어 나선다.

그는 최근 IHQ 새 예능 '돈줄내려 왔습니다'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지금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상심이 크실 텐데 우리가 가진 '잘 먹는' 재능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힘을 주자는 취지가 너무 좋았다"며 출연 계기를 밝혔다. '돈줄내려 왔습니다'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영자, 제이슨이 '먹방'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목표 매출을 달성할 때까지 음식을 주문해 먹는 푸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이영자는 '먹요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여섯 명의 '먹방'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는 "먹성이 강호동 같다. 신진 세력이지 비장의 무기"라고 언급하면서 "음식이 제한되지 않다 보니 서로 욕심을 내지 않아 호흡이 되게 좋다"며 웃었다.

또 함께 진행 호흡을 맞추게 된 제이슨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예의가 있다. 외로운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인간성을 가졌다"고 칭찬했다.

생애 처음으로 예능 MC에 도전하는 제이슨(35)은 "평소에 많이 먹기보다는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저희로 인해 소상공인분들께 큰 힘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출연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배우자인 개그우먼 흥현희의 반응을 묻자 "제가 먹는 프로그램 들어간다고 하니 흥현희 씨가 '내 자리 아니냐'며 질투를 줬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마지막으로 이영자는 자영업자들에게 "자책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좋겠다"며 "우리가 부자로 만들어드릴 순 없지만 마중물처럼 용기를 잃지 않을 정도로 찾아가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19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